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5

그 동안 학생들과 교류하며 살아오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각한 사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수든 학생이든 일단 약속을 했으면 그걸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설명해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마땅히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건 교수에게나 학생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관관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면 마땅히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현해야 합니다. 겉연쩍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호의를 받고서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은 결코 몇몇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 순간의 겉연쩍음을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끝내 마음의 짐으로 남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이것 역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나, 호의를 베풀어준 상대방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일이나 그리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겉연쩍음을 이겨내고 조금만 용기를 발휘하면 되는 일입니다. 내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그 조그만 용기를 발휘하지 못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래에 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기로 하지요.

사례 1 :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인간생활과 경제’ 과목을 수강하는 미대생과 얘기를 나누다 그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책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었기에 표지 디자인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표지 디자인을 부탁해도 되냐고 물었고 그 학생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공짜로 부러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출판사측에 말해 적절한 보상은 해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바쁠 테니까 방학한 다음에 만들어서 보여주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학이 모두 끝나고 나서도 그 학생은 끝내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야 부탁한 처지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바빠 약속을 못 지켰겠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사정 정도는 얘기해 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허물없는 친구들 사이에서 약속했을 때도 그 정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있는 후 일 년쯤 뒤에 내가 미술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앞쪽에 그 학생이 딱하니 앉아 있다가 나와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상당히 멧쩍어 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나와서 약속을 여기고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몇몇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아마 그 뒤로는 캠퍼스를 걷다가 먼발치에서 나를 발견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다른 길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심정이 그리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례 2 :

지난 학기 나에게 근로장학생이 한 명 배정되었는데, 원칙적으로 나를 위해 한 달에 40시간을 일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 원칙이 그렇다 해도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일만 시키는 게 보통입니다. 근로장학금을 타고는 있지만 공부하기에만도 바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도 학기 초반에는 거의 일을 시키지 않고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학기말이 가까워 오면서 어떤 일이 생겨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요즈음 바쁘냐고 물었더니 취업 준비 때문에 조금 바쁘게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쁜 일 지나고 나면 자료 몇 가지 찾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 말이 그런 일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하는 게 더 좋다고 대답하더군요. 부담 없이 그 일을 시켰는데 겨울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된 지금도 갸름무소식입니다. 아마 졸업하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나 봅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내가 부탁한 게 아니고 공식적인 차원에서 나를 위해 일을 해줘야 하는 것이니까 아까 그 미대생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맡겨진 일의 진전에 대해 보고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너무 바빠서 영 못 하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본인 일 하라고 허락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사실 그 친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시점에서 나와 약속한 일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했으면 내가 흔쾌히 이해해 줬을 겁니다. 나에게 직접 찾아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겸연쩍다고 느꼈으면 얼굴을 안 봐도 되는 전화를 이용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전화까지도 겸연쩍다고 느낀다면 이메일을 보냈어도 내가 납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 두 번째 기회마저도 완전히 날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나와 그 친구가 또 다시 만날 기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나와 약속을 어긴 마음의 짐을 늘 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한 일에 대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 사람이라면 별개의 문제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 친구는 앞으로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겨도 나를 찾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 학생은 정말로 사소한 실수를 한 셈입니다.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실수의 대가가 무척 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로서도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먼발치에서 나를 보고 피해가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것은 나로 보아서나 그 학생 자신으로 보아서나 무척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례 3 :

학기가 끝나 성적이 발표되면 성적 고쳐 달라고 찾아오는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 듯, 나는 그런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는 편입니다. 나더러 까칠하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원칙대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기에 사정이 딱한 것을 알면서도 눈 딱 감고 거절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걸고 말하면, 이때까지 학점을 고쳐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단언은 하지 못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정말로 딱한 사정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끝내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준 F학점 때문에 취업이나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위기에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이제 시효가 지나 나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고백하는 바지만, 그런 사례가 몇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학점을 받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F학점을 받는 게 큰일이라면 미리 나를 찾아와 상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움을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나나 조교들이 도와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고 F학점 맞은 다음 갑자기 찾아와 애걸복걸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보면 F학점 맞아도 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척 불성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을 확인해 보면 결석을 밥 먹듯이 한 것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숙제만이라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게 봐주려 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마디로 동정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 모처럼 구한 직장 잃게 될까봐 혹은 어렵게 들어간 대학원 입학 취소될까봐 원칙을 어기고 학점 올려준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후 선생님 덕분에 직장이나 대학원 잘 다니고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이지 이메일 한 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최근 나타나 나를 무척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것이 이 글을 쓰게 만든 동기가 되었습니다.) 난 원칙을 저버리고 선처를 베풀었는데 애걸복걸하던 그들은 당연한 듯 돌아서 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가고 난 후가 달라진다는 말 있지 않아요?

그 학생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표현처럼 ‘빨쫂해서’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쫂하다 해도 고맙다는 이메일 몇 줄 정도 쓰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벗어던질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학점을 구걸한 것이 떳떳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언제나 마음의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저버리고 학점을 올려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만이 그 짐을 벗어던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정의 앙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조금만 용기를 내면 쓸데없이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이메일 하나 보내는 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수고를 아까다가 더 큰 마음고생을 하는 건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영어 표현에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게 있습니다. 비록 늦었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앞에서 예로 든 학생들과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상대방에게 용서

를 구하는 이메일이라도 하나 보내세요. 그래야 마음의 짐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지요.

사람이 한 번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건잡을 수 없이 쪼그라듭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영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남에게 미안한 일을 했다면 곧 바로 용기를 내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사과를 할 필요도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용기 있게 사과를 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간단한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햇살처럼 밝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ps.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하는 제자들이 나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각양각색입니다. 연구실로 찾아와 정중하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통해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메일을 보내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똑같은 경우 그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가장 높은 경우가 어떤 쪽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짐작하듯, 직접 찾아와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가장 낮은 것은 이메일 쪽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요?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성의를 갖고 대하느냐입니다. 자신이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단순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진리이지만, 사회생활을 해보면 이것이 우리 삶에서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겁니다.